중국 정부 승인 요구에 틱톡 매각 급제동

바이트댄스 "中규제 준수"
15일 데드라인 앞두고 변수
미중 갈등 국면 속 힘겨루기

미국 정부의 사용 금지 압박 속에서 중국 바이트댄스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업권 일부를 사실상 강제로 처분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기술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지난 31일 늦은 밤 성명을 내고 "회사는 28일 (중국) 상무부가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와 '중국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엄격하게 준수해 기술 수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8일 수출에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수출 제한 기술 목록'을 수정해 발표했다. 수정 목록에는 음성·문자 인식 처리, 사용자에 맞춘 콘텐츠 추천, 빅데이터 수집 등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업데이트는 틱톡 매각에 제동을 걸기 위한 행동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새 수출 제한 규정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 부분을 매각할 때 중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새 규정은 노골적인 금지는 아니더라도 매각 지연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트댄스가 즉각 새 규정을 따르겠다는 뜻을 천명하면서 중국의 새 수출 규제가 틱톡 매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바이트댄스가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미국 기업들과의 틱톡 매각 협상을 진행하는 데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틱톡 인수전에는 기술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유통업체 월마트 등 미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MS와 월마트는 공동인수를 위한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바이트댄스가 내달 15일까지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가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바이트 댄스에 틱톡 매각을 압박한 가운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거꾸로 제동을 거는 조처에 나서면서 양국이 틱톡 매각 문제를 두고 힘 대결을 벌이게 됐다.

전면적인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틱톡 매각 문제가 갖는 민감한 성격 탓에 설사 바이트댄스가 자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요청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기한 안에 허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시한 안에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예고대로 미국 내 틱톡 운영을 금지하는 전례 없는 초강수를 두거나 매각 협상 일정 '지연'을 받아들이는 타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미 전대 이후 호감도
트럼프는 정체 바이든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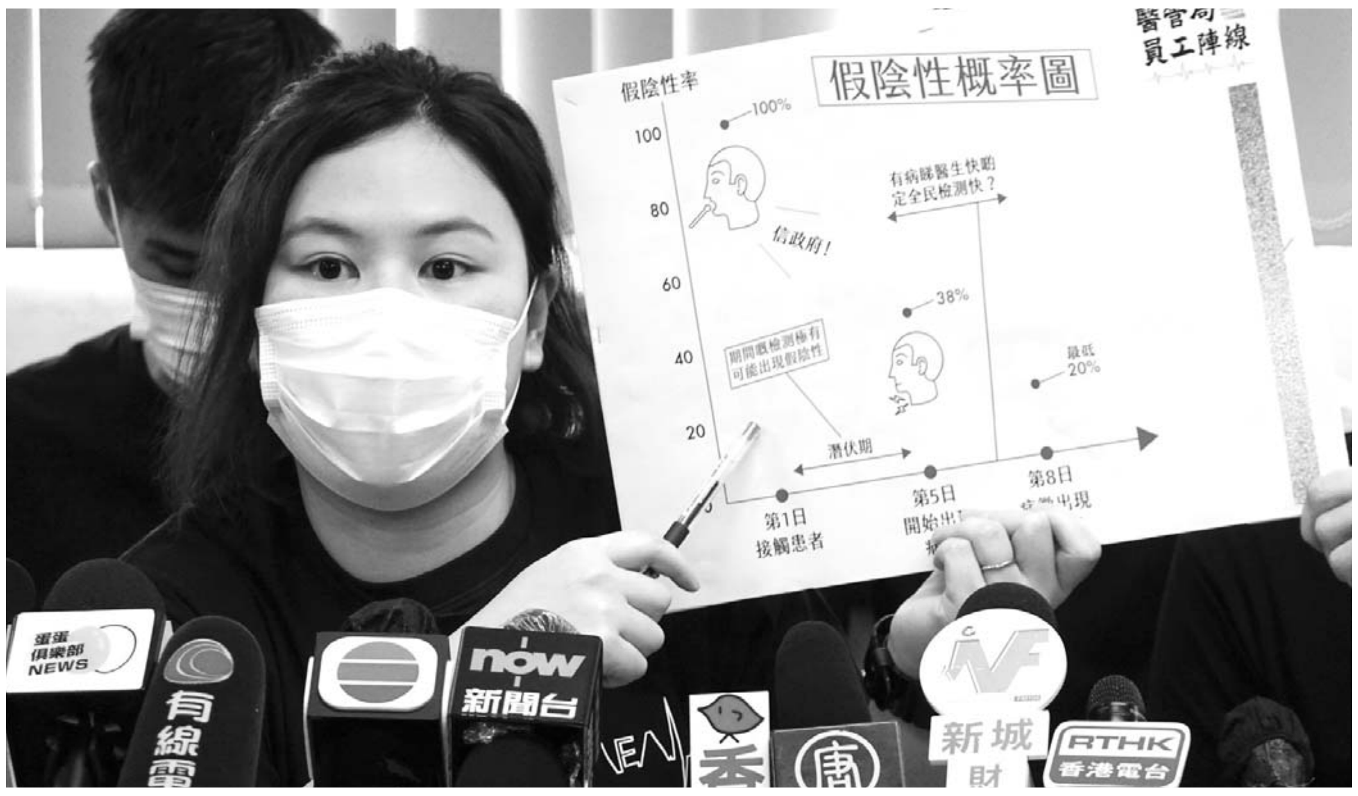
대선후보 공식 지명으로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전당대회 이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도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반면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선호도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 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미 ABC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전당대회(24~27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31%를 기록했다.

이 조사(표본오차 ±3.9%포인트)는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인 28~29일 미 성인 732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는 한 주 전에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의 32%와 비슷한 수준이다.

오히려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4%포인트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당대회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다.

반면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46%를 기록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민주당 전대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5%포인트 상승했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호감도는 7%포인트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전수검사 보이콧" 홍콩 의정의관국 노조 지도자인 위니 위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전수 검사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인력 지원을 받았다. 홍콩내에서는 이를 두고 홍콩인들의 생체정보가 중국에 넘어가 감시 수단으로 활용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마지막 주말 미국 곳곳서 총격 사상자 속출

7세 여아·식당 손님 등 사망

주말인 30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선 잇달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CNN·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에선 친구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한 7세 여아가 총에 맞고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40분께 현장에 도착해보니 피해자가 총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여아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생일파티가 열린 집 앞을 지나가던 차량에서 총알이 발사됐으며 당시 집 앞에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 여아만 총에 맞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시카고 남부 지역의 한 팬케이크 식당 밖에서도 지나가는 차량이 총을 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이날 새벽 켄터키주 매디슨빌에선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리 행사 도중 총격이 발생해 5명이 다쳤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100여명 가까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명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부상자 중 43세 여성과 14세 여아 등 2명은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40대 여성은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슷한 시간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한 나이트클럽에선 총격으로 4명이 다쳤다. 캔자스시티 경찰 대변인은 이날 새벽 2시 30분께 총격 사건 신고가 접수됐으며 클럽 안에서 시작된 논쟁이 클럽 밖에서까지 계속되던 중 사건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47〉 주희

성리학 집대성… '주자'로 존중의 대상

주희(朱熹, 1130~1200)의 자는 원회, 호는 회옹으로 복건성 우계 출신이다. 북송의 주돈이, 정호, 정이의 사상을 이어받아 성리학을 집대성 했다는 평을 받는다. 유학계에서는 주자(朱子)로 존숭의 대상이 되었다.

집안은 대대로 안휘성의 호족으로 부친 주위재는 남송에 출사하였으나 재상 진회와의 이견으로 은퇴해 고향 우계에 은거하였다. 1148년 19세때 진사에 급제했다. 고종, 효종, 광종 3대에 걸쳐 지방관으로 근무했다. 1194년 영종이 즉위하고 조여우가 재상이 되자 황제의 고문격인 시강(侍講)에 기용되었다. 그러나 권신 한덕주의 권모술수로 조여우가 퇴직하고 주희 등 일련의 학자들이 조정에서 퇴출되었다. 그의 학문은 위학(僞學)으로 간주되고 제자들도 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 유명한 경원위학지금(慶元僞學之禁)이다. 후일 명대의 철학가 이탁오는 주희가 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영종 사후 이종이 즉위하자 명예가 회복되어 태사휘국공(太師徽國公)에 추증되었다.

주희는 부친 사후 호적계, 유벽수, 유병산에서 사사하였다. 불교와 도교에도 흥미를 가졌으나 이연평을 만나 유학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는 명분과 절의를 중시하였다. 금나라와의 화약을 강력히 반대했다. 오랑캐와의 타협은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금나라를 많은 백성을 죽인 금수만도 못한 불구대천의 원수로 규정했다. 후일 주자학을 신봉하는 관리나 학자가 유독 명분론에 집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 후기 송시열과 노론 강경파도 이러한 사상적 흐름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희는 북송의 주돈이, 정호, 정이가 추구한 도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사상적으로 정리해 주자학의 시조로 불린다. 유학의 최고 가치인 도(道)의 정통을 스스로 이어받았다고 생각했다. 송사 '도학전'에는 "맹자 이후는 주자, 정자, 장자가 단절된 도를 계승했고 주희에 이르러 비로서 명확해져 식자들은 정론(正論)이라고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입장에서 만물은 기로 구성되지만 이를 움직이는 원리는 이로 보았다. 사람은 이를 바탕으로 성(性)을 이룬다. 무릇 형태가 있고 모습이 있는 것이 기(器)이고 그 원리가 되는 것이 이 즉 도이다. 형이상자(形而上者)는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것, 즉 이이고 형이하자(形而下者)는 실상도 없고 모습도 없는 것 즉 기이다. 온갖 이가 있기 때문에 온갖 사물이 있는 것이다.

육상산은 주희와 논쟁한 인물이었는데 주자학이 너무 사변적이고 공리공론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하고 유심론(唯心論)을 강조했다. 우주의 본체인 이는 곧 심(心)이라는 입장으로, 육상산의 심즉리(心卽理)와 주희의 성즉리(性卽理)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그가 이끄는 상산학파는 우주 각 방면의 해석이 지나치게 소략해 주자학에 미칠 수 없었다. 그래서 송대 말엽 이후에는 주자학이 유학의 정통을 차지하게 되었다. 송사 도학전은 주자를 중심으로 서술했고 상산은 유림전에 포함했다.

주희는 여러 책에 다양한 주석과 편집을 했었는데 특히 사서집주(四書集注) 편찬에 심혈을 기울였다. 사서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포함한다. 그의 노력으로 사서는 오경과 함께 유학의 경전으로 존중받게 되었다. 특히 대학과 중용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저술해 오대(五代)까지의 중국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했다. 특히 화이(華夷)의 구분을 철저히 하였다. 그의 명분론적 사관은 조선과 도꾸가와 막부의 일본 역사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단호한 처신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평생 한결같았다. 심한 추위나 더위를 만나도 한순간 흐트러짐이 없었다. 부모에게 효심을 다했고 아랫사람에게는 자애로웠다. 내외간에 매우 정숙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모든 일에 정성과 경건함을 다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 의복은 몸을 가리고 음식은 배를 채울 정도면 만족하였다. 집은 비바람을 막을 정도였다. 평생 이렇게 생활하며 아주 풍족히 여겼다.